

# “TV 왕좌 노려라”... 삼성·LG, 초대형·OLED로 글로벌 공략

## 어닝쇼크, 모니터로 반전 모색

삼성, FAST 서비스 글로벌 확장  
80인치 등 초대형 TV로 시장 선점  
LG, OLED 모니터 게임시장 공략  
웹OS 기반 스마트 TV 생태계 강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나란히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TV 모니터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과 LG는 고사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를 적극 출시하면서 세계 TV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TV 운영체제(OS)를 고도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 역량을 강화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은 내년 초대형 TV 제품군으로 매출 규모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OLED 모니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4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1.5인치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데 이어 게이밍 모니터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OLED 시장 점유율이 50% 넘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49인치 모니터의 높은 판매량으로 시장 점유율 31%를 확보하며 독보적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4형 제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49형, 올해 27형 등 다양한 제품군



T1 선수단이 삼성전자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8(G80SD)'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을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OLED' 모니터 신제품은 출시 한달 만에 총 2만대 이상이 판매된 바 있다.

LG전자 또한 제품 라인업 확장과 충분한 패널 공급망으로 19%의 점유율 2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는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OLED 패널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이 초대형 TV를 내놓으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실제 80형 이상 TV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처음으로 TCL에 1위를 빼앗겼다. 그 뒤를 또 다른 중국업체인 하이센스가 바짝 추격하며 LG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초대형 TV를 내놓으며 중국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삼성전자의 80인치 이상 초대형 T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판매된 삼성전자의 TV 제품군 중 75인치(189cm) 이상 TV 비중은 전체의 약 45%로, 이 중 80인치 이상 TV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21%로 집계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 TV 신모델로 100형급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선보인다. 구체 라인업과 출시 시기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100형, 110형, 115형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삼성과 LG는 웹(web) OS 고도화를 통해 TV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OS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LG전자가 지난달 27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webOS 서밋(Summit) 2024'를 개최했다.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이 webOS 플랫폼 사업의 지난 성과와 중장기 사업 전략 및 미래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서비스 강화로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S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통해 TV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FAST 시장이 오는 2027년 약 120억 달러(약 16조원)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OS인 타이젠(Tizen)을 스마트TV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드라마, 예능, 뉴스, 키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는 미국에서 CJ ENM, KT알파등 국내 콘텐츠미디어 기업들과 손잡고 약 40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출시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K-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웹OS 플랫폼 매출의 1조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비전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 플랫폼 사업역량을 강화한다. 박 본부장은 웹OS 플랫폼 사업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콘텐츠 경쟁력 및 편의성 강화 ▲TV 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스마트기기 등 웹OS 생태계 확대 ▲플랫폼 내 광고사업 경쟁력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성장성이 높은 게임 분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한다. 현재 webOS에서 제공 중인 게임은 지포스 나우, 아마존 루나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인기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총 4500여개에 이른다. LG전자는 webOS TV로 즐기는 게이밍 경험을 지속 강화, 새로운 게이밍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지난달 'webOS 서밋 2024'에서 "webOS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네이버웹툰, 불매운동 확산... 이용자 감소·주주소송 위기 직면

### 여성혐오 논란·SNS 홍보조종 사태 韓·日 시장 위축, 북미시장 확장 시급

여성혐오 콘텐츠 방관 논란으로 시작된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이 공식 SNS의 불매운동 조종 논란까지 맞닥뜨리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2분기 이용자 감소가 확인된 후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 속에서 불매운동의 여파가 소송에까지 영향을 줄지 업계 안팎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일간활성사용자(DAU·안드로이드)가 불매운동 직전주

220만~230만 명에서 불매운동 후 200만~210만 명 수준으로 10% 감소했다.

이번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은 지난 6일 웹툰 '이세계 풍풍남'이 네이버웹툰 주최 2024년 '지상최대공모전' 2기 1차 심사 통과 후 여성혐오 논란이 일며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공식 SNS가 16일 '불매'를 유머로 사용한 웹툰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네이버웹툰 측은 지난 21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불매운동 관련 여론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일에 작품 마케팅 차원에서 제작해 활용했던 소재"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곤란하셨을 해

당 작품의 작가님을 포함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후 226명의 웹툰작가가 모인 '웹툰작가 연합'까지 해당 홍보 게시물에 대해 "독자를 기만하고 작가의 신뢰를 무시했다"며 공식입장을 내 상황이 악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증권 소송 전문 로펌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불씨를 던질 것으로 보고 우려 중이다.

로펌 '로빈스 겔러 루드만&다우드', 'BG&C' 등은 현재 11월 초~중순을

기한으로 네이버웹툰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WB TN)이 상장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지식재산권(IP) 사업 수익 둔화, 최대 시장인 한국·일본의 저환율이 수익성에 미칠 영향, 이용자 감소에 따른 광고 수익률 저조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적으로 보는 지점은 최대 시장인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광고수익 매출 상승세 둔화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대 시장인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의 매출 구조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달러 대비 원화·엔화의 약세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이를 상쇄할 만큼 두 시장에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유료 콘텐츠 수익을 올려야 한다"며 "북미 시장 확장을 통해 달러 수익을 크게 확보하고 새로운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장기전력으로 수행해야 할 만큼 한국·일본 시장과 북미, 기타 지역 시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최상목 “주식시장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뉴욕서 IB 대상 ‘한국 경제 IR’ AI·에너지 전환으로 성장동력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투자은행(IB)인 JP모건,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채권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우수한 인공지능(AI) 생산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

너지를 최대한 확충하겠다"며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경제분야 갈등 관련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세계경제지수(WGBI) 편입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전반적인 리뷰가 있을 예정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최 부총리의 설명회 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